

승실대학 초기 선교사 교장들의 교육철학과 윤리사상*

박삼열 (승실대학교,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초기 선교사들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윤리

II. 배위량(William Baird) 선교사

1. 배위량의 기독교 신앙과 승실학당 창립
2. 배위량의 교육철학과 윤리사상
3. 배위량 교육과정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

III. 나도래(R. O. Reiner) 선교사

1. 나도래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선교
2. 나도래와 승실의 도약

IV.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선교사

1. 마포삼열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윤리
2. 마포삼열과 승실전문학교

V. 윤산온(George S. McCune) 선교사

1. 윤산온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윤리
2. 신사참배 거부와 기독교 신앙 윤리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5.01>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 ABSTRACT •

The Philosophy of Education and Ethical Thinking of the Principal of Missionaries in the Early Stage of Soongsil University

Associate Prof., Park, Sam-yeol (Soongsil University)

Christian ethics became the principle of enlightenment for Korea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Korean missionary history, Christianity presented equality and a new paradigm of social ethics. The ethics of women's rights,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Christian love have boosted public appeal and served as a catalyst for the spread of Christian social ethics. Thus, this paper traces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Soongsil School to the decision of the closing school and examined the teaching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of the missionaries who headed Soongsil University. William M. Baird established Soongsil College in order to cultivate human in accordance with Christian belief and ethics, R.O. Reiner built the dormitory and learning center and laid the external foundations for growth to the modern university. Samuel A. Moffett emphasized that according to Christian values and faith ethics, the university became maintained, being under the oppression of Japan. And George M. McCune enforced they refused the visits to the shrine and had to put the purity of faith in the value of education and Christian ethics. Soongsil College was established and was improved, as building an the educational system, in accordance with Korean missionaries'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ir thought of Christian ethics.

Key words: Christian faith, Christian ethics, missionary, educational philosophy, modernization

I. 들어가는 말: 초기 선교사들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윤리

1876년 조약 체결이후 문호를 개방하게 된 조선은 국제 질서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서구 열강들과 통상 조약을 체결해 나갔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문호 개방의 결과 서양 종교가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서양 종교의 윤리사상이 종래 민족 정서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포교가 아닌 우회적인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우회적인 방식이란 선교보다는 교육과 교육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이 원하는 시대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사업을 제공하며 복음 전도를 피하게 되었다. 조선의 시대적 요청과 선교사들의 의도가 모두 반영된 것이 근대화로 나타났다.

선교사들의 교육을 통해 전파된 기독교 윤리사상은 일제 식민통치기를 거치며 조선인의 계몽의 원리가 되었다. 당시 조선의 사회 윤리는 유교적 봉건 윤리이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분은 사회적 질서를 공고히 해 주었다. 사농공상의 철저한 신분제도가 유지되었던 사회를 향해 기독교는 평등을 제시하며 새로운 사회윤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명령과 복종이라는 계급 윤리를 기독교적 사랑의 윤리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도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윤리사상이라 할 수 있다. 여권 신장, 남녀평등, 사랑의 윤리는 대중적인 호소력을 높이며 기독교 사회윤리의 전파에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여성 운동을 일으키며 평등을 강조하게 된 것도 근대화의 큰 산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선교병원이거나 진료소를 통한 의료선교를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아원 설립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 사역을 통해 기독교 정신과 윤리사상을 실천하기도 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의 근대화 교육을 선도하며 많은 결실을 맺게 한 정신적 토대로서 교육철학과 기독교 윤리를 살펴보는 것은 기독교 선교사를 통한 조선의 근대화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송실학당이 건립되어 폐교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며 송실대학의 교장을 맡았던 선교사들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윤리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배위량(William Baird) 선교사

1. 배위량의 기독교 신앙과 송실학당 창립

배위량(W. M. Baird) 박사는 1891년 조선에 입국한 뒤, 부산과 대구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고, 서울을 거쳐 1897년부터 1931년까지 평양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다. 배위량이 소속된 미국 북장로교는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확장해 나갔다. 배위량 선교사는 평양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전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교육 사업도 왕성하게 펼쳐나갔다.

배위량이 입국한 1891년 2월은 조선은 내적으로는 개혁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하였고, 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진통을 겪고 있었다. 열강의 침략 속에서 배위량은 한국 사회를 “한국은 이제 문명화에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막 새 생명의 맥박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고 커다란 변화가 임박했다”¹⁾고 평가한다. 배위량은 한국사회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미래를 결정할 동인으로 판단했다. 배위량은 한국사회에 휘몰아칠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 William, M. Baird, 「1895년 3월 13일, 엘런우드 박사 귀하」, 김용진 옮김, 『월리엄 베어드의 선교편지』, (서울: 송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2017). 38.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학의 설립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대학의 교육을 통해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배위량은 “교육을 받은 한국인 지도자들 없이는 커다란 오류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²⁾고 말한다.

배위량은 일본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 교육을 받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반선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크게 염려했다. 따라서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선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영향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³⁾ 실제로 배위량은 보수적인 미국 중서부의 엄격한 분위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의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⁴⁾ 이러한 배위량의 보수적인 성향은 학교 부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학교를 설립할 때 부지는 “봄비는 지역” 또는 “자율적 교육”⁵⁾이 방해받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궁궐이나 공관이 있는 서울은 기독교 교육을 완성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배위량의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을 성과 속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은 세속과 완전히 분리하여 진행할 수 없을지라도 가능한 방해받지 않는 곳에 학교 부지를 결정해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1912년 제기된 기독교연합대학 설립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기독교가 전래되어 선교를 시작한 후 1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를 보유하게 되었고, 배위량이 부임한 평양에만 100여개 이상의

2) 「1897년 1월 12일, 엘린우드 박사 귀하」, 위의 책, 70.

3) 「1905년 9월 15일, 브라운 박사 귀하」, 위의 책, 15.

4) Richard Baird, *William M. Baird*, 숭실대학교 뿌리찾기위원회 역주, 『윌리엄 베어드』,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16), 31.

5) 「1897년 1월 12일, 엘린우드 박사 귀하」,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편지』, 72.

초등학교와 기독교 중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기독교연합대학을 서울에 설립하느냐 평양에 설립하느냐에 대한 ‘대학문제’가 제기되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배위량은 평양에 설립할 것을 주장하지만, 선교본부는 서울에 설립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하노버대학 출신인 배위량은 평양에 보수신학과 보수신앙의 뿌리를 내렸다. 배위량은 1897년 평양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숭실 학당을 설립하였고 1905년 숭실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다. 배위량과 숭실대학은 ‘대학문제’로 선교본부와 갈등을 빚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배위량은 보수적인 기독교 교육을 주장하지만, 감리교의 언더우드와 애비슨은 선교본부와 함께 세속을 포괄하는 기독교 교육을 지향하며 대립했다. 1914년 선교본부는 세속학문을 포괄하는 조선기독교대학인 연희대학을 서울에 설립할 것을 결정했다. 사실 배위량은 선교본부가 “서울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투자 때문에 서울 이외의 장소는 고려하지 않고”⁶⁾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서울은 세속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 사업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배위량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태도는 진정한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 타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배위량이 볼 때 대학 문제의 핵심은 평양과 서울 양자택일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평양에서 양성되는 학생과 서울에서 양성되는 학생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⁷⁾ 배위량은 세속적인 서울보다도 더 복음적인 평양이 기독교 인재상에 부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배위량은 신앙 양심과도 위배되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당시 배위량은 선교 리포트에서 “저는 쓸모없는 다툼의 중단을 갈망합니다. 만

6) 「1914년 5월 25일, 브라운 박사 귀하」, 위의 책, 235.

7) 김명배, “한국교회 ‘대학문제’(College Question)의 발생배경과 그 쟁점들에 관한 연구”, 『현상과인식』 제41권4호(2017), 200. 김명배는 대학문제를 장소, 선교와 교육방법, 교육정책 결정권한, 한국선교회 내의 문제 등 4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다.

일 선교위원회로부터 온 최근의 편지에 적혀진 수순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교육 사역의 미래는 분명히 제가 양심을 걸고 협조할 수 없는 노선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⁸⁾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당시 평양의 기독교 신학은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했기 때문에 배위량을 지지했지만 결과는 사기와 흥미를 잃게 되는 것⁹⁾으로 끝나게 되었다.

배위량의 보수적인 신앙은 신사참배 문제에서 다시 한 번 잘 드러난다.

연희대학을 중심으로 언더우드와 애비슨은 신사참배를 허용한 반면, 배위량과 평양숭실대학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배위량의 교육에 영향을 받은 평양의 분위기는 민족주의 항일 운동의 방향을 띠게 되었다. 배위량은 반제국주의자는 아니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연희대학은 신사참배를 비종교적인 애국행위라고 말하는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여 신사참배를 했고, 그 결과 학교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위량은 신사참배는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우상숭배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윤리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한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2. 배위량의 교육철학과 윤리사상

배위량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선교 리포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옛날의 한국에서 다소간 불투명하지만 새로운 한국으로 변화하는 이 시점

8) William M. Baird,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 리포트 II』, 김용진 옮김,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7), 31.

9) 「1914년 5월 25일, 브라운 박사 귀하」,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편지』, 239.

에서 한국의 젊은이를 위한 이 교육 사역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칠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전망이 밝고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한국은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교회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소명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 교육받은 강인한 사람들이며,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희생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¹⁰⁾

배위량은 당시의 한국 사회는 변화하는 시점에 서 있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 가장 중차대한 것이 교육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복음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희생적 삶을 사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임을 천명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교회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육의 필요성을 둔다.

배위량의 교육철학의 핵심은 1897년 8월 말에 열린 연례회의에서 교육 정책 서론에 잘 드러난다.

모든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정신은 유지되어야 한다.

- (1) 학교의 주요 정신은 유용한 지식을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하고, 따라서 현실 속의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학생들이 되게 한다.
- (2) 학생들에게 종교적이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 (3) 미션스쿨의 주목적은 현지교회들과 그 지도자들이 자기 민족 속에서 기독교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데 있다.¹¹⁾

10) William M. Baird,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 리포트 I』, 김용진 옮김,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6), 201.

11) Richard Baird, 『윌리엄 베어드』, 220.

(2)항과 (3)항을 보면 배위량의 교육철학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종교적이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리고 종교적이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에게 종교적이며 영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교육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종교적이며 영적인 영향력을 심어준다는 것은 학생들이 기독교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위량의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의 양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배위량 선교 사역 전체에 지속적으로 용해되어 있었다.

당시 한국사회는 소학교를 비롯한 기독교 초등학교가 증가하였지만 중등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배위량은 중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중등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배위량은 1897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자신의 사랑방에서 중등학교 교육반을 시작하였고 송실학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송실학당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상위의 고등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청이 평양에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배위량은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1905년에 평양지역 장로교회의 임원이었던 대학부를 설치하여 대학교육과정을 시작하고, 1906년에 기독교연합대학(The Union Christian College)인 합성 송실대학이 정식 조성되었다. 이에 앞서 배위량은 1905년 감리교 내한 선교부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대학교육에 연합할 것을 제안하고, 감리교가 배위량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1908년에 대한제국 정부는 송실대학을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인가를 내 주었다. 1900년에 전교생이 30명에 불과했던 송실학당은 1905년에 102명, 1910년에는 498명으로 증가했다. 송실대학은 1908년에 학생 수가 18명이었고, 첫 졸업생을 배출한 1910년에는 학생수가 54명이

었다. 1912년에 장로교회는 총회를 조직했고, 교세가 확장되어 10만여 명의 교인과 전국에 총회 산하 노회가 조직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평양에서 시작된 배위량의 교육은 서북지역 전체로 확장되어 서북지역에 100여 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¹²⁾ 이것은 평소에 배위량이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한국인 교회의 성장이 조사, 설교자, 교사 그리고 총명한 기독교 평신도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우리의 교육 사역이 발전되고 통합되기를 원한다고 믿었습니다.”¹³⁾는 신념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위량은 평양에 기독교 중등학교의 붐을 조성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대학인 숭실대학의 설립자(재임기간 1897~1915)이다. 숭실대학은 한국근대 교육의 효시이며 배위량은 선교사업과 한국의 교육의 근대화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3. 배위량 교육과정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

숭실대학 교육과정을 선정할 때 배위량은 자신의 신앙노선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마티어 박사의 원칙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추가한다. 배위량은 1899년 교육 보고서에서 “마티어는 “우리 미션 스쿨은 기독교적이어야 하고, 자국어를 사용하며, 철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는 학교는 학생들의 환경에 맞지 않는 교육을 피해야만 합니다.’를 추가하고 싶습니다.”¹⁴⁾라고 말한다. 미션 스쿨이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학교를 설립할 때 학생들이 속세에 유혹받지 않는 기독교적 정신이 스며있는 장소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기

12) 임희국, 『평양의 장로교외와 숭실대학』,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17), 80.

13) 「1897년 1월 12일, 엘린우드 박사 귀하,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편지』, 70.

14) Richard Baird, 『윌리엄 베어드』, 244.

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시켜 나갔다.¹⁵⁾ 그리고 성경공부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인격을 함양하고 기독교 윤리에 부합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공부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¹⁶⁾ 그리고 성경공부를 필수로 지정한 또 하나의 이유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학교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분리를 시도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배위량 교육과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국어의 사용과 한문의 강조이다. 배위량은 감리교 선교회가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을 펼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독교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반대했다. 영어교육을 시행해서 비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사는 것보다 모국어를 사용하여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순수한 의미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환경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자조부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당시 학교를 다니는 문제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던 시기이기에 쉽지 않은 않았다. 배위량은 학생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립할 수 있는 훈련을 학업을 수행하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¹⁷⁾ 학생들은 스스로 일을 해서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정원일, 새끼줄 꼬기, 비누 만들기, 빗자루 만들기, 제혁, 목수일, 재단일, 책 제본¹⁸⁾과 같은 일을 했다. 학생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학생 환경

15) 「1900년 11월 27일, 엘린우드 박사 귀하」,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편지』, 119.

16) Richard Baird, 『윌리엄 베어드』, 246.

17) 「1897년 1월 12일, 엘린우드 박사 귀하」,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편지』, 71.

18) Richard Baird, 『윌리엄 베어드』, 247.

에 맞는 교육을 했다. 배위량은 숭실대학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하고, 성서, 수학, 물리학, 자연과학, 역사학, 인문과학, 어학, 변론, 음악을 교과목으로 규정했다. 1912년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과목들을 추가로 개설하면서 대학의 교과과정의 기틀을 갖추었다.

배위량의 보수적인 신앙의 노선은 평양의 기독교 초기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의 초창기에 잘 구현되어 결실을 맺었다. 배위량의 헌신으로 1915년에 숭실중학은 288명을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들 중에 94명이 기독교 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12명이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로, 그리고 42명이 대학 재학 중이었고, 19명이 해외에 진출한 결실¹⁹⁾을 맺으며 교육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나도래(R. O. Reiner) 선교사

1. 나도래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선교

나도래(R. O. Reiner)선교사는 1910년 한국에 도착하여 대구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나도래 사역의 중심은 교육이었다. 그의 첫 사역은 대구 계성학교에서 시작하였다. 나도래는 1910년 11월 1일부터 1911년 3월 1일까지 애덤스와 함께 사역했고, 애덤스의 사임 이후부터는 홀로 모든 책임을 지고 학교를 운영해 나갔다. 나도래는 학교 사역을 해 나가며 학생을 가르칠 교사의 부족과 학생들이 사용할 교재와 참고도서의 빈약함을 절감했다. 나도래는 이 부족함을 해결해 나가며 한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나도래는 사역의 초기부터 교육에 역점을 두었고, 1915년 4월에 숭실대학의 교장으로 취임한다. 숭실은 제 1대 배위량 교장을 시작으로 2대

19) 류대영,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2호 (2010), 153.

나도래 교장(1915.4~1918.3)이 부임하며 한국 교육 역사의 산실로 부상하였다. 나도래 교육사상은 다음 세대의 숭실 후배들에게 많은 기회와 삶의 생생한 철학을 선물하였다. 나도래 교장이 숭실에 대한 열정과 한국 교육 선교에 대한 열정은 1915년 10월 14일 미국의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난다. 나도래 교장은 대구에서 교육의 경험을 숭실 양성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나도래는 학교의 재정충원과 학교 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후학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에서 학교의 설립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직 기숙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래 교장은 기숙사의 확충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확신했다. 기숙사 확충을 위한 노력은 교장 임기동안 지속되었다.²⁰⁾ 그리고 나도래 교장은 기숙사 건립이 궤도에 오르자 전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나도래는 미국식 교육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여 대학 과정을 마친 이후 전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 설립을 이사회에 요청 하였다. 한국의 교육은 대학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진행한다면 더욱 전문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서구 교육 제도를 한국 교육제도에 접목시키고 실행하고자 노력했다. 나도래 교장은 학교 건물의 증축을 위한 노력도 진행했다. 나도래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 교육의 단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도래 교장은 건물이 증축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며²¹⁾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한국 선교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도래 교장의 이러한 노력은 교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넘어 한국에 대한 사랑과 한국 교육을 위한 열망이 현실화 된

20) 「1918년 1월 17일, 브라운 박사 귀하」,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편지』, 270.

21) *Personal Report 1927-1928, R.O. Reiner*, 43.

것이다. 나도래의 열정은 미국에 있는 선교 후원자들이 한국 교육의 절실함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도록 연결하는 가교가 되었다.

나도래 교장은 편지를 통해²²⁾ 교육에 대한 열정과 선교 사역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기숙사와 학습관 건물 건축에 주력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나도래의 교육 철학은 교육을 위한 재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제반 시설 확충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나도래는 한국 교육의 근대화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간파하고 교육과 선교의 불빛으로 채워나갔다.

2. 나도래와 송실의 도약²³⁾

나도래는 교장으로 봉직하는 동안 송실의 외형적인 도약에 앞장서며 많은 업적을 쌓았다. 나도래 교장은 교장직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11년 주요 교수진은 배위량 교수(성경, 교육학 담당), 나도래 교수(수학, 영어, 교육학 담당), 편하설 교수(천문, 심리, 논리, 철학 담당), 모의리 교수(동, 식물학, 영어, 창가)로 구성되었다.²⁴⁾ 제1대 교장 배위량 박사에 이어 2대 나도래 교장, 그리고 3대 마포삼열 교장에 이르며 교육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대 나도래 교장은 송실이 보다 나은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송실의 자산목록을 증가시키는 데 주력했다. 나도래는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했다. 1917년에는 난방시설 완성, 대학 기자재 구비, 기계창설비 확충, 체육관 강당 마련, Graham Lee 기념 기금 기숙사를 마련했다. 그리고 1918년에는 중국인 교수 사택, 산업 농장, 천문관, 운동장을 구비했

22) *Personal Report 1927-1928, R.O. Reiner*, 43.

23) 박삼열, “내한 선교사 나도래(R.O. Reiner)의 교육활동과 사상”, 『송실사학』 제37호 (2016), 175-203을 참고하였음.

24) 송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 100년사』, 1997, 151.

다.²⁵⁾

나도래는 한국 근대축구의 활성화에 앞장섰다. 「매일신보」에 따르면, 1915년 5월 20일 송실학교 운동장에서 송실중학과 송실대학 연합운동회가 열렸다. 연합운동회는 30여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 유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관했다. 연합 운동회는 매년 개최되었고, 1918년에는 연합운동회에서 송실대학 축구팀이 실업팀을 능가하며 관서지방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20년에 조선체육회가 설립되었고, 1924년에 관서체육회가 설립되었다. 1921년부터 조선 체육회와 평양기독교 청년회가 주최하는 전조선축구대회가 열렸고 송실대학의 축구부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²⁶⁾ 1922년 평양기독교청년회 주최 제2회 전조선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며 승승장구했다.

나도래 교장 재임기간 동안 「송실학보」를 창간하고 발전시켰다. 1914년 10월부터 문학동인회가 구성되어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1915년 9월에 「송실학보」를 창간하고 나도래는 편집뿐만 아니라 발행인을 맡아 가며 15명의 직원과 함께 운영해 나갔다. 1916년 3월에는 ‘국판」 「송실문학보」에 문학동인회의 작품이 실리며 송실의 문예 역사가 시작되었다. 1916년 6월에 「송실문학」 제2호가 출간되었다. 「송실문학보」 분량이 45쪽에 이를 정도로 규모를 갖추어 나가며 송실 본보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송실학보」의 성장과 발전은 한국 신문학의 태동에 촉매가 되었다. 한국 신문학의 태동은 1908년 「소년」지가 발간된 때부터 1919년 「창조」지가 발간될 때까지로 잡는다.²⁷⁾ 한국 신문학 태동에 문학사에서 「청춘」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춘」은 1914년 10월에 발간되었으며, 이때는 이미 송실의 문학부가 조직을 이룬 때이다. 「송

25) 송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 100년사』, 1997, 193.

26) 유영렬, 『민족과 기독교와 송실대학』, 48.

27) 송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 100년사』, 237.

실학보」는 문학부를 계승하여 한국 신문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숭실대학의 외형적인 성장의 결과 재적생 역시 급격하게 증가한다.

〈숭실대학 재학생수(1907-1915)〉²⁸⁾

연도	1907	08	09	10	11	12	13	14	15
재적생수	30	49	54	80	87	70	65	56	135

1907년에 비하면 재적생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1914년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점은 나도래 교장 재직 당시 숭실이 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16년 한국 최초로 밴드부 음악 전도대를 조직하였다. 음악 전도대는 전국 곳곳에 순회 음악 전도활동을 하며 선교뿐만 아니라 숭실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17년 1월 1일 「매일신보」는 음악 전도대의 활약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다.

숭실대학 교원 생도 약 20여 명으로 음악대를 조직하고 오랫동안 음악 연습을 하였는데, 근래에는 그 기예가 숙달되었으므로 이를 조선 각 도시에 파견하여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 방문할 곳은 경성, 군산, 광주, 전주, 목포, 대고, 마산, 선천 등이오...

숭실대학 음악 전도대의 활동은 나도래 교장 임기동안 절정을 이루며 한국 음악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음악 전도대는 근대 서양음악을 도입하고 대중들에게 알리며 음악의 대중화에 선도역할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음악 전도대는 자선 음악회를 개최하여 기근과 같은 삶의 피폐화 속에

28) 박정신, 『숭실과 기독교』,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14), 109.

고통 받는 민족을 위로하고, 구제하는 사업을 담당했다.²⁹⁾ 고통 받는 민족에게 음악으로 위로와 계몽과 자선 사업을 펼치는 활약은 한국 근대화에 필요한 역할이었다.

나도래는 1910년 한국에 도착하여 대구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여 숭실대학의 2대 교장을 역임하며 한국 교육의 근대화와 선교를 위해 학교부지 및 시설 확충, 교회의 새로운 개척에 매진했다. 열악한 숭실의 교육현실을 보면서 재정을 마련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나도래는 한국의 교육현실을 미국에 있는 동역자들과 후원자, 선교단체에 호소하여 후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숭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였다. 나도래의 활약으로 숭실의 교육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선교사

1. 마포삼열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윤리

마포삼열(Samuel Austin Moffett)은 1864년 미국 인디애나 주 매디슨에서 출생했고, 하노버 대학에서 화학 학사, 과학 석사를 마치고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884년 배위량과 함께 미국 북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마포삼열은 1890년 미국 북장로교 한국선교회 선교사로 서울에 도착한 이후 1936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46년간 한국 선교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이다. 마포삼열은 1918년 4월 숭실대학의 3대 교장으로 취임해서 1928년 9월까지 봉직했다.

마포삼열의 교육 철학은 <전도의 전제 조건과 원칙>이라는 글에 잘 나타난다. 마포삼열은 먼저 선교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교육은 이차적

29) 유영렬, 『민족과 기독교와 숭실대학』, 43-44.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교육, 문학, 언어, 과학, 역사와 자선 활동은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을 이차적이거나 부차적인 사안들로서 확실히 인식하거나 적절한 위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들에 독점적으로 드는 시간과 노력의 양으로 인해 일차적인 사역을 대체하고 첫 번째인 것을 두 번째 자리에로 격하시키게 될 것이다.³⁰⁾

마포삼열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교육 방향을 명확히 한다. 즉 신앙이 목적이 되고, 교육은 신앙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대학의 설립과 대학의 교육 목적도 단순히 서구의 교육과 문명을 소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 구원을 위한 전도가 선행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정신에 대한 교육이 마포삼열의 가장 우선된 교육철학이라 할 수 있다.

마포삼열의 두 번째 교육철학은 선교적 관점에서 교육기관의 확대를 강조하는 데 나타난다. ‘선교적 관점에서’ 교육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교육은 선교사역과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교적 관점에서 교육기관을 확대 해야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 기관의 확대를 위한 기금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육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방향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인문적 차원에서” 기독교 청년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포삼열은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이었던 전도를 통해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규모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발전과 교육 내용에

30) 김선욱, 박신순, 『마포삼열』,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17), 109.

도 내실을 기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육기관의 확대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원칙을 정한다. 그것은 선교회와 교회가 교육 기관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포삼열은 “교육기관은 선교부와 관련 위원회가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이들로 구성된 사람들, 혹은 이 영역의 대표자들, 즉 선교부가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이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한다.”³¹⁾고 말한다.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직원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제대로 교육에 봉사할 수 있으려면 기독교적 훈련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선교회와 교회의 교육을 통해 선교사들의 에너지와 노력이 투입되어 먼저 교육을 시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마포삼열의 교육철학 세 번째는 1927년 9월 15일자로 뉴욕의 국제선교 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 기독교 교육의 대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의 삶에 맞추어 변화된 조건에 적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 현장의 경험에 비추어,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수세기동안 필요로 해왔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세상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이 메시지도 변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변하지도 않았으며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늘 아래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이룰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진리이다. 교육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교육은 교회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말씀의 능력을 통해 교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뿐이

31) 위의 책, 31.

다.³²⁾

기독교 교육은 초자연적인 말씀의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선교사로 현대를 살아가며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시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마포삼열은 기독교 교육은 반드시 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를 발전시켜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한 윤리적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 교육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 마포삼열과 송실전문학교

마포삼열은 배위량과 협력하며 송실대학과 관련을 맺었다. 1904년에 송실학당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고, 1905년 송실학당이 정식대학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마포삼열은 송실학당의 운영비용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1904년 10월 20일 마포삼열은 브라운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 부족한 교사들을 확보하고 급여를 적절하게 지불해야 함을 강조하며 해결을 요청했다. 그리고 1906년, 1909년, 1910년에는 교육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해야 함을 브라운 박사에게 편지를 써서 알리며 교육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외적인 지원을 위해 앞장섰다.³³⁾

1918년 4월 2대 교장이었던 나도래가 사임하며 마포삼열은 송실대학의 3대 교장으로 봉직했다. 마포삼열이 교장으로 봉직하는 동안 과학관

32) 위의 책, 34-35.

33) 위의 책, 28-29.

건축과 '전문학교'인가를 받았다. 숭실대학은 1905년 대학교육을 시작했고, 1906년에는 합성숭실대학으로 개교했고, 1908년에는 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제는 <조선교육령>, <사립학교규칙>, <전문학교규칙>을 제정하여 사립학교를 탄압했고, 숭실대학도 숭실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교육 정책을 마련했다. 당시 총독부는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했다. 보통학교는 현재의 초/중등학교 과정에 해당하고, 실업학교는 고등보통학교와 실업교육에 해당했고, 전문학교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했다. 당시 대학교육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립대학 탄압 속에 숭실대학은 1924년 전문학교인가원을 제출했고, 1925년 4월 1일부로 전문학교로 개편하게 되었다. 당시 총독부와 언론은 숭실대학이 전문학교로 승격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상 대학이라는 위상을 빼앗긴 것이다.³⁴⁾ 마포삼열은 1925년 8월에 휘트모어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숭실대학이 유지되어 한국 교회를 위해 제대로 교육받은 목회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마포삼열은 숭실대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목적을 위해 새로운 교장이 나오기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한다. 또한 많은 학교들이 정부의 방침을 지키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고유한 특성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비판하며 철저하게 학교들이 기독교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³⁵⁾

34) 숭실대학교 120년사편찬위원회 편저, 『민족과 함께 한 숭실 120년』,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7), 136-141.

35) 김선옥, 박신순, 『마포삼열』, 279-280.

V. 윤산온(George S. McCune) 선교사

1. 윤산온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윤리

윤산온(George S. McCune)은 1928년 송실의 4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1936년 2월에 해임될 때까지 7년간 송실대학에 봉직했다. 윤산온은 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체육관 건립, 농과 신설하여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애국계몽 운동을 통한 민족의식 함양에 앞장섰다. 윤산온(1873 ~ 1941)은 187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다. 윤산온은 미주리 주 파크빌에 있는 파크대학에서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1903년 취득했다. 1905년에는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다. 파크대학의 외동딸 헬렌 베일리 매카피와 결혼했다. 파크대학과의 인연은 윤산온의 신앙 노선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파크대학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일하면서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여 공부할 수 있는 자조부(自助部)를 설립하고 있었다. 평양 송실전문학교는 파크대학처럼 노동을 중시하며 자조부가 있었기 때문에 윤산온의 철학과도 맥을 같이 했다. 윤산온이 1928년에 입국하여 1929년 6월에 송실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한다.³⁶⁾ 윤산온이 취임할 당시 동아일보 6월 14일자 기사에서 윤산온의 사람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의 인격과 수완을 말하자면 그는 어느 때든지 활동적인 인물이다. 항상 쾌활한 웃음과 민첩한 동작을 구비하였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모든 것을 잘 이해하며 특히 우리 조선청년을 상대할 때는 말이나 무엇에든지 적극적이

36) 윤산온은 송실대학의 교장으로 봉직하기 이전 이미 1909년부터 선천의 신성학교 교장으로 봉직한 적이 있지만, 이 논문은 송실대학 중심으로 논하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 그리하여 상대한 사람으로 하여금 청쾌미를 가지게 하고 기쁘게 복종하고 따르는 마음에 품게 하는 인격의 소유자이다.³⁷⁾

윤산온의 성품은 먼저 민첩한 동작을 구비한 활동적인 인물이라는 점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승실대학은 승실전문학교로 개편한 후 문과와 농과를 두고 청년을 양성하고 있었고,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을 즈음 열정적이고 수완이 민첩한 윤산온이 교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기대와 희망으로 평가한다. 윤산온은 승실전문학교의 교장이 되기 전에 1909년부터 선천의 신성학교 교장으로 봉직하며 역량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평양에서 배위량이 평양지역의 학교와 교회를 운영하는 일을 도우며 교육철학을 정립했다. 윤산온은 가장 “훌륭한 학교는 훌륭한 선생과 훌륭한 학생이 있는 학교”³⁸⁾이기 때문에 훌륭한 학교를 위한 환경 조성과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제일의 교육철학이라고 생각했다. 윤산온은 3대 교장 마포삼열의 바람처럼 승실전문학교를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키고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윤산온이 취임한 후 대강당, 기숙사, 행정 본관을 건축했다. 특히 대강당 겸 체육관은 자신이 직접 설계하여 1928년에 기공했다. 대강당은 음악회, 강연, 가극,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테니스, 농구, 탁구, 권투를 할 수 있는 당대 제일의 대강당이 되었다. 대강당은 승실전문학교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의 주요 행사를 유치하여 진행함으로써 승실전문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승실전문학교의 학생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고, 기숙사의 증축으로 이어졌다. 1932년 개교 35주년에는 행정 본관을 5층의 웅장한 본관으로 증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윤산온 교장에 이르러 승실전문학교가 외형적으로 종합대학의 기틀을 마련하며 도약할 수 있는

37) 박신환 저, 『윤산온』, (서울: 승실대학교출판부, 2017), 60-61.

38) 위의 책, 41.

계기가 되었다.

윤산온의 훌륭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학교의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건물을 증축하는 것을 넘어 농과와 공과 증설로 이어졌다. 농과는 기존의 실습 시험장을 활용하여 농과 강습소 실습장을 개설하고 학생 모집을 시작했으며 1931년에 정식으로 농과가 설치되며 농촌 운동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윤산온이 농과를 설립한 목표는 “조선농촌에서의 실제 지도자로 튼튼한 농부가 될 일꾼을 양성하여 항상 농촌과 연락을 갖고자”하는 데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과 설치를 계기로 송실전문학교는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업 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었다. 농과를 설립하고 이훈구를 농과과장으로, 류소, 모이리, 김호식, 김응룡, 명재역 등을 농과 교수로 보임하였다. 조선일보는 1931년 3월 8일자 사설에서 “송실전문학교는 관공립이 아닌 사립 농과전문으로 넓은 실습장, 좋은 시설, 권위 있는 교수들을 초빙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기독교 선교사업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물심병진정책을 펼쳤다”³⁹⁾라고 평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을 지향하는 사립학교에서 농촌의 관리를 양성하는 것보다 농민 운동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좋다는 사회적 요구와 기독교 교육이 마음과 신앙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 즉 현실의 삶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교육 정책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송실(崇實)은 송실학당에서 교육했던 한학자 박자중이 말한 것처럼 “진리의 숭상, 진실의 숭상”을 의미한다. 구한 말 무너져가는 조선 사회에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살려 참된 학문을 통해 시대를 구국하고자 했던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윤산온은 1929년 6월부터 일제 강점기 농촌의 계몽을 목적으로 『농민

39) 위의 책, 65-66.

생활』을 발행했다. 농업이 주업이었던 시대였기에 농민 계몽 운동은 실제로 국민 계몽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산온은 『농민생활』 창간호 머리말에서 “농촌이 망하여 가며 농민은 곤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농촌에 남아서 농사하는 사람도 기회만 있으면 가서 자유노동이나 할까 하여, 농촌 백성은 실로 마음 부치고 살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이 같은 형편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약한 처지에 있는 백성도 그 영향을 받도록 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힘껏 손을 마주 잡고 일하여 봅시다.”⁴⁰⁾라고 농민들을 격려한다. 단순히 농민의 격려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농업에 관한 학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까지 전달하며 실질적인 농촌 계몽에 앞장섰다.

2. 신사참배 거부와 기독교 신앙 윤리

윤산온은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 이후 조선총독은 신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한민족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신사참배는 한민족에게 일본 천황의 조상과 일본의 전쟁영웅을 참배하도록 함으로써 한민족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한국인의 기독교신앙을 파괴하려는 한민족말살정책이며 종교탄압정책이었다. 일본은 기독교학교에 신사참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교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강요했다. 천주교는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신사참배를 수용했고, 감리교도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감리교 산하 학교 학생들이 신사 참배를 수용함으로써 학교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로교 선교회는 신사참배 거부방침을 결정함으로 장로교 산하 평양의 숭실중학, 숭실대학, 승의여자대학은 1938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진 폐교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발휘된 숭실의 정신은 다른 신을 경배

40) 위의 책, 70.

하지 말라는 기독교 신앙과 식민지백성이지만 우리의 민족정신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민족의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라 할 수 있다. 윤산온은 신사참배 거부로 교장직에서 파면을 당했다. 신사참배 거부하며 폐교의 길을 걷게 된 송실의 중심에 윤산온이 서 있었다.

윤산온은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1935년 11월 14일 평남 도내 공립·사립 고등학교 교장회의에서 야스다케 도지사는 평양 신사참배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평안남도 도지사는 참배를 거부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하며 12월 20일을 기한으로 제시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목적이 동아시아의 지배권 및 동양을 제패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윤산온은 간파하고 있었기에 더욱 단호했다. 신사참배를 수용하지 않으면 조선에 건립된 다수의 학교가 폐쇄당할 수밖에 없음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총독부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해도 아무런 신앙상에 위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산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거절한다.⁴¹⁾

첫째, 신사참배는 분명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둘째, 대다수 사람들이 신사에서 예배가 드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독교인들은 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산온은 “총독부와 관련된 이 일에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양심을 지키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내가 취한 태도로 말미암아 치러야 할 대가가 내

41) 위의 책, 83.

직위를 잃고, 한국에서 추방당하고, 한국에서 투옥되거나 암살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이해를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켜 주고 있습니다”⁴²⁾라고 말한다. 윤산온은 개인의 신앙 양심으로도 학교장으로서도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학생들에게도 요구할 수 없었다. 이런 윤산온의 결연한 태도는 1936년 1월 18일에 숭실전문학교 교장에서 해임되는 사유가 되었다.

당시 윤산온처럼 모든 기독교 교육자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평양과 인근지역 기독교학교와 지도자들은 학교가 폐쇄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산온은 기독교교육을 시행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학비를 조달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립심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 윤리를 지켜내는 철저한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윤산온은 비록 학교가 폐교를 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 더 참다운 교육임을 자각한 지도자였다.

VI.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숭실학당을 창립한 1대 배위량 교장부터 4대 윤산온 교장의 교육철학과 숭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19세기 말 조선왕조와 민족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왕조와 민족을 위기에 서 구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선교사들의 응답이 숭실학당의 창립과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숭실학당은 1897년 평양 신양리에 창립되었다. 숭실학당은 당시 근대학제 추진의 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지도자 양성의 산실이 되었다. 숭실학당은 중학과 대학으로 발전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사를 양성하며 조선의 근대

42) 위의 책, 79.

학제 운영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했다. 선교사들의 헌신된 교육은 조선사회의 폐쇄성을 딛고 개화와 계몽으로 의식이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민족교육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이루었다. 특히 송실학당은 발전을 거듭하며 기독교 신앙위에 축조된 민족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보수적인 신앙의 노선에서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던 배위량 교장, 기숙사와 학습관 건축에 앞장서고, 송실학보의 발전으로 한국 신문에 큰 업적을 남겼던 나도래 교장,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를 발전시켜야 하며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 교육임을 강조한 마포삼열 교장, 그리고 송실전문학교를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키고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신사참배 강요에 신앙의 순수성으로 맞섰던 윤산온 교장의 교육철학은 송실학당이 근대 대학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된 것이다.

참고문헌

- 곽신환, 『윤산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17.
- 김선옥, 박신순, 『마포삼열』.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17.
- 박정신, 『숭실과 기독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14.
- 숭실대학교 100년사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 1997.
- 숭실대학교 120년사편찬위원회, 『민족과 함께 한 숭실 120년』,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7.
- 유영렬, 『민족과 기독교와 숭실대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5.
- 임희국, 『평양의 장로교회와 숭실대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17
- Personal Report 1927-1928, R.O.Reiner*
- Richard Baird, *William M. Baird*, 숭실대학교 뿌리찾기위원회 역주, 『윌리엄 베어드』,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16.
- William M. Baird,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 리포트 I』, 김용진 옮김,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6,
- _____,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 리포트 II』, 김용진 옮김,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6,
- _____,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편지』,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7.
- _____,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일기』.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3.
- 김명배, “한국교회 ‘대학문제’(College Question)의 발생배경과 그 쟁점들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제41권 4호(2017), 191-217.
- 류대영,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2호(2010), 127-157.
- 박삼열, “내한 선교사 나도래(R.O. Reiner)의 교육활동과 사상”, 『숭실사학』 제37호(2016), 175-203.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03일

심사게시일: 2019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21일

• 국 문 초 록 •

선교사들의 교육을 통해 전파된 기독교 윤리사상은 일제 식민통치기를 거치며 조선인의 계몽의 원리가 되었다. 기독교는 평등을 제시하며 새로운 사회윤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여권신장, 남녀평등, 사랑의 윤리는 대중적인 호소력을 높이며 기독교 사회윤리의 전파에 기폭제가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근대화 교육을 선도한 정신적 토대로서 교육철학과 기독교 윤리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기독교가 조선의 근대화의 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에 본 논문은 숭실학당이 건립되어 폐교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며 숭실대학의 교장을 맡았던 선교사들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윤리사상을 살펴보았다. 배위량 선교사는 기독교 윤리에 부합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숭실대학을 건립했다. 나도래 선교사는 숭실대학에 기숙사와 학습관을 건축하며 근대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외형적 기틀을 마련했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일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가치와 기독교 윤리에 따라 학교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윤산은 선교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교육의 가치로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숭실대학은 내한 선교사들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윤리사상에 따라 설립되었고,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며 발전했다.

주제어: 기독교 신앙, 기독교 윤리, 교육철학, 선교사, 근대화